

시류음

승 리 에 서 최 후 승 리 에 로 !

승 리 의 기 치

김 영 일

미제를 쳐부신 영웅한 사단들
불굴의 용사들을 사열하시는가
여기 전승기념관에 원수복 입으시고
환한 미소속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

우러려 령장의 출중함이
안광에 넘쳐 그욕하시다
멸망의 내리막길 미제에게 선언한
그 탁월함이 추켜드신 손길에 비껴여
있다
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

들려오는듯싶어라
미제가 전쟁의 불을 지른 그 첫날
그날에 벌써 승리를 확인하시며
호랑한 웃음속에 수령님 하시던 말씀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세제는 보았어라
조선사람의 그 본때, 그 기질로
패전을 모른다는 미제의 등뼈를 꺾어
놓은
조선의 신화, 조선의 기적울

아직은 전쟁사의 그 어느 작전도에
서도
그어진적 없는 신묘한 붉은 화살표가

힘 에 대 한 생 각

김 태 롱

이 세상 누구도 믿지 않았다
전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리라고
하나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승리를
우리 무슨 힘으로 안아왔던가

패전을 모른다는 미국
《강대성》 신화를 보란듯이 깨버리고
멸망의 시궁창에 처박은 힘
《승리》상의 저 람홍색기발을
하늘가에 떠받든 그 힘은 무엇이였
던가

그것은 사랑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결전장
생사를 판가름하는 치열한 싸움터에서
수령님 주신 사랑
그 어떤 불길도 태우지 못한 사랑이
였거니

몰어보자 세계전쟁사여
피로 적서진 너의 력사 그 어느 갈
피에
총포란이 아닌 콩을 싣고
전선으로 군용차가 내달린

수령님의 손길에서 뻗어나갔어라
그 어느 전쟁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전략전술의 그 비범함이
싸우는 고지들에 승리의 기발로 나뭇
것어라

오, 침략자들의 숨통을 거머쥐시고
조국해방전쟁 그 3년간을
승리의 세월로 빛내여오신 수령님
그이를 모시여 그이가 계시여
청소한 공화국이 제국주의괴수를
억척같이 눌러던고 강국으로 솟아올
랐거니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락관을 준
년대
승리는 조선의것임을 만방에 펼친 년대
그렇다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조국의 존엄 민족의 운명을 지켜
승리로 인도하신 위대한 수호자
지나온 승리의 년대가 받들고
맞이할 승리의 래일이 길이 모실
수령님
수령님은 조선의 장군으로 영원히 계
시여라

그런 사랑 새겨본적 있었더나

말해보라
전선이 지척인 화선휴양소에서
목음을 짓누르는 떡메소리 울리고
행군하는 애어린 병사의 신들메
최고사령관이 매여준
그런 감동의 화폭 새겨본적 있었더나

아, 콩나물국울 끓이던 뜨거운 불길이
라래치는 불구름을 밀어낼수 있다는
것울

철썩 철썩 산골을 깨치던 그 떡메로
침략자들의 정수리를 쳐갈길수 있다
는것울

이름없는 병사가 영웅이 될수 있음을
세계앞에 보여준 조국해방전쟁

그 어떤 총란도 뚫을수 없고
그 어떤 무기도 굴복시킬수 없는
백두령장이 부여주신 크나큰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했거니

그 어느 강대국에도 없는 힘

그 어느 나라 전승박물관에도 없는 힘
위대한 사랑이 안아온

렬 사 들 의 기 관 단 총

김 윤 식

금시라도 틀어쥐고 방아쇠를 당기면
멸적의 불출기가 뿜어나올듯싶구나
뜨겁게 달아오른 총구에선
물씬 화약내가 풍겨나오는듯싶구나
오, 인민군렬사묘의 기관단총이여

얼마나 낮익고 숭고한 모습들이
이 총신에 비껴 흐르는것인가
리수복, 강호영, 김룡택…
장렬한 최후의 그 순간에조차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놓지 않은 총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주인의 권리를 주신 아버지수령님
삶의 그 품을 지켜

화 선 신 선 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인민군렬사들이 적의 포탄격지로 만들어
리용하던 화선신선로가 전시되어있다—

김 영 일

어허 오늘은 누굴 상좌에 모실가
특무장아바이 능청스럽게 눈을 쨍끗
싱글빙글하는 병사들의 앞에는
포탄격지로 만든 화선신선로가 부글
부글

오늘도 원수들의 공격을 몇번이나 물
리쳤나
원수들의 폭격에 고지는 낮아졌어도
승리의 신심은 하늘에 닿아
미국놈비행기 보총으로 쏘아 떨군
각을 하나 꼬마병사 상좌에 앉았네

자, 어서들 들게나
먹어야 힘이 부쩍 난다네
특무장아바이 양념처럼 위우는 말
리지는 병사들의 폭소에
갱도기 등의 포탄격지 등불도 춤을
추네

정말 좋구나
후방에서 보내온 어물맛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네
수령님 보내주신 콩으로
맛나게 무쳐낸 콩나물항취에

7.27전승기적
세월은 무궁토록 길이길이 전하리라

렬 사 들 의 기 관 단 총

렬사들이 틀어잡은 저 총은
그들의 명줄이였고 목숨이었나니

렬사들이 목숨바쳐 지킨 조국
그 조국이 잊지 못해 품어안은
영생의 이 언덕에서
사랑하는 기관단총을 틀어잡고
오늘도 조국을 지키는
영원한 사수로 사는 전화의 영웅들

역세게 틀어잡으라
전승을 안아온 영웅들의 후손들이여
여기 인민군렬사묘 공화국기발우엔
대를 이어 물려가며 잡고있어야 할
조국수호의 무기가 있다

미 국 에 보 내 는 경 고

김 송 립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승리상앞에서—

김 영 일

특무장아바이 말을 하네
자, 승리한 그날
우리 고향 평양에 가서 한턱 내지
평양의 특산물 그득 넣은 화선신선로
아니, 그때에는 평양신선로라 해야
겠지
그때에는 누구도 빠져선 안돼
특무장의 명령이야

자 어서들 들라구
많이들 먹구 또 야간습격전에 나가야지
특무장의 말에 어느 한 병사가 《양념》
을 치네
먹어야 힘난다네
또다시 리지는 폭소
아 원수칠 용기 백배해주던 전선의
랑만이여

불비 쏟아지는 고지에서 뚫던 화선신
선로
그날의 병사들 여기 없어도
그날의 승리를 말해주며
오늘도 화선신선로는 뚫고있어라
승리의 랑만, 승리의 회월로
우리 가슴 후더이 끓여주고있어라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낸다 한들
가련한 미국의 물품을 굶어보는것보다
그렇게 마음 후련하고 호뜻할수 있
으랴

남의 땅에 기여들었다가
형제도 없이 부러지고 동강나고 박
살난

미국의 술한 파첼더미들
찢겨진 그 잔해들…

볼수록 통쾌하구나
《대아메리카》의 처참한 물품
두동강난 저 비행기의 잔해는
비행기사나공조에 혼쫓이 난
하늘의 요새라 뽀내던 《B-29》

무한계도가 풀어헤쳐진채
꺾어진 포신 땅에 구겨박힌 육중한
저 땅크는
땅크습격조에 걸려들어 박살난 땅크
불뚝없이 되버린 저 잔해들에서
피를 토하며 썩어가는 미국의 주권

승리에서 최후승리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승리상앞에서—

김 송 립

7월의 눈부신 해살
여기에 실리어 빛을 뿌리는가
바로 여기서 광휘로운 빛발이
전승의 내 나라에 비껴가는가
《승리》상대들에 빛나는 글발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

우리들수록 솜업하구나
수령님 이끄신 전승의 세대가
미제를 쳐부시고 항복서를 받아낸
영웅조선의 그 불멸할 1950년대에
우리 원수님 삼가 드리신 경의의
친필

수령님 안아오신 전승
장군님 빛내여오신 선군의 업적
영원한 최후의 승리로 빛내이실 의지
그 의지로 끓여번지는 심장의 더운
피로
《승리》상대들에 새기여주신
뜻깊은 친필이여

빛나는 저 글발
어이 대들에만 새기시었으랴
자신의 심중에 억척같이 새기시고
우리 원수님 빛내여가시어라
수령님 찾으셨던 고지와 전호들에
장군님 오르셨던 최전연산발들에
위대한 승리의 년대를

동해의 관문 섬방어대들을 찾으시었

을 본다

신생독립국가 조선앞에
백여년의 전쟁사에서
승전만을 기록했다는 미국
그 거만한 코대가 여지없이 꺾여
쓰디쓴 참패의 눈물들이킨 미국

1950년대 그 조선전쟁에 바친
패배의 주권, 수치의 제물이 적었던가
《푸에블로》호, 《EC-121》정찰기…
기회를 노려 도적교양이처럼 기여들
었던간
그때마다 영웅조선의 무적의 위용
앞에
미국은 무릎꿇고 개교망신만 당했으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끝내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제
또다시 이 땅에 덤벼든다면
그때엔 아메리카가 통째로
거대한 파첼더미, 잔해들로 뒤덮이
리라

승리에서 최후승리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승리상앞에서—

김 송 립

을 때

병사들의 명증포화에 적진이 산산조
각나고
화염을 뿜으며 대기를 박차는
위력한 전술로케트들의 그 불줄기
하늘땅 바다를 진감하는 장쾌한 그
폭음속에서
우리는 원수님 안아오시는 승리
세월을 넘어 이어지는 7.27을 보았
어라

전승의 그날은 멀리 흘렀어도
7.27은 력사의 갈피에만 있지 않
아라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조선의 날과 날은 7.27로 흘러흘러라

이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 물려온
다면
전화의 영웅들 그 후손들답게
우리는 싸워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위대한 승리의 년대처럼
우리의 년대를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
리라

오,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조선의 7.27은 영원하리라
그이를 높이 받들어
싸우는 조선은 힘차게 나아간다
승리에서 최후승리로!

우리 민족은 력대로 남의
나라에 화살 한촉, 돌맹이 하
나 던진적없는 선량한 인민
이며 북의 군대는 자기 강도
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
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무장
집단이다. 외부세력의 도전
과 위협이 증대될수록 북
의 군대는 훈련도 강도높
게 하고 병기도 월등하게
개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현저
히 높이고있다.

최근에만도 인민군대는
전술유도탄발사훈련, 포
실란사격을 비롯한 이어
의 훈련을 통해 첨단장비
의 성능과 실전능력을 검
증과시켰다. 그 모든것은
철두철미 조선반도에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온갖 적대
행위에 대처한 자위적인
군사행동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은 북의 로케트발사
훈련에 대해 덮어놓고 거
들다 못해 유엔안보리까
지 사측하여 북 《도발》,
《위협》문제로 국제화하
고있다. 북에 대해 뿌리
깊은 체질적거부감과 자
기만이 강자인채 하는 독
선적인 체병을 가진 미국
과 그에 동조하는 불순세
력의 오만하고 불순한 처
사가 아닐수 없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북에 대
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
제적전전을 보기가 어렵다며
압을 가하고 한편에서는 다
른 길을 택하면 잘살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고있
다. 그러나 한손에는 핵방패
를, 다른 손에는 창조의 보검
을 쥐고 강성부흥을 하자는
것이 북의 야심찬 목표일진
대 상대의 당근과 채찍전술

에 달려들러 만무한것이다.
북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자체의 전쟁억제력을 비상
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
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로선이다.

세계에 첫 원자탄이 출
현한이래 지구촌에서 많
은 전쟁들이 유발됐지만
핵을 가진 국가들간에는
단 한번도 싸움이 터진적
이 없다는 전례를 봐도
핵 대 핵, 미싸일 대 미
싸일을 취하는 북의 단호
한 결심과 강경립장은 당
연하고 현명한 정의의 선
택이다.

북은 이미 말로 할 때
는 지나갔다고 자기 결심
과 립장표명을 했다.
최근에 인민군의 전락군
부대가 진행한 전술유도탄
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 준
비되어있어야 한다고 하
신것을 보면 자위를 생명
으로 여기는 북의 초강경
태세가 결코 빈말이 아니
라는것을 가히 알수 있다
고 본다.

북의 립장은 명백하다.
도전세력이 아무리 아부
재기를 쳐도 자기의 자위
적이고 위력적인 전술유
도탄들이 목표를 겨냥해 거
침없이 계속 날아올것이라
는것이 반공화국적대세력
에 주는 북의 현실적대답인
것이다.

달라져야 할것은 미국의
분별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
과 그 추종세력의 시대착오
적인 편견과 전횡이라고 부
연한다.

재중동포 오명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전 한신대학
교 교수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미국이 남의것을 보
면 본능적으로 빼앗아가지고
싫어하는것은 가난해서가 아
니라 잘못 길들여진 나쁜 버
릇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
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미국이란 나라는 200여년전
나라를 세울 때부터 태생적으
로 이런 나쁜 버릇을 타고 이
지구상에 태어난 나라이다.

미국이 그동안 전쟁을 하
여 남의 땅을 빼앗은 회수가
무려 165회이상이라고 한다.

《미국의 못된 버릇 조선이 고친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미국이 6.25전쟁때 〈철의
삼각지〉(강원도 평강군과
철원군, 김화군을 연결하는
중부전선의 요충지)에서부터
북진해올라가면서 점령지역
의 이름을 텍사스, 오콜라호
마 등으로 불린것을 아는가.

이것이야말로 전쟁이 끝나면
〈한〉 반도를 미국령토의 일
지구상에 태어난 나쁜 버릇
의 발로가 아닌가.
(5027작전계획) 이란 북

을 점령한 이후 일본과 북을

서로 나누어가지겠다는 계획
이다.

그러면 누가 미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것인가.

미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
줄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조
선뿐이다. 미국이 온갖 수단
으로 압박하고 조여도 그것
을 견디어낼수 있는 정신력
이 있는 나라는 조선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정신력의 원천
은 어디서 온것인가.

《자주민보》에 실린 글

그것 은 1930년 대 말
김일성장군과 항일유격대원
들이 겪은 고난의 행군에서
온것이다.

그러면 과연 정신력만으로
미국의 저 교질적인 못된 버
릇을 고칠수 있는가. 여기에
총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군정치에서 나온 핵무기이
다. 조선의 핵무기는 선제공
격용이 아니다.

총칼이면 못할것이 없다는
미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

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핵이
다. 조선에 핵이 없어보라!
조선반도는 벌써 지도상에서
사라지고말았을것이다.

력사의 신이 있다면 그 신
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고난
의 행군을 걸어온 조선만을
남겨두고 미제국주의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말것이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북미사
이의 전쟁은 력사적인것이며
력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
면 저 어려운 싸움을 하고있

는 조선의 편에 서야 한다.

조선이 싸우고있는것은 미
국이란 나라자체가 아니고
태생적으로 길들여진 미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지적
해둔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
에게 버릇없는것을 하는것
을 〈버르장머리가 없다.〉
고 한다.

력사가 200여년밖에 안되
는 미국이 반만년 유구한 력
사를 가진 나라에 대해 지
금 버르장머리없는것을 하고
있다.

반드시 고쳐주어야 한다.》
본시기자